

A-5 Immediate implant placement with autogenous bone grafts

홍성우, 유경태, 김 탁, 피성희, 유형근, 신형식
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최근 치아 상실에 대한 수복적 치료로써 전통적인 치료방법과 함께 임플란트가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, 여러 치료방법 중 임플란트가 일차적인 치료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.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술은 발치 후 보통 9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발치와 치유기간을 기다린 후, 일차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차수술까지는 골질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며, 최종 보철물 장착까지는 1년반 내지는 2년을 기다려야만 했다. 이에 Lazzara 가 1989년 발치를 한 직후 그 부위에 e-PTFE를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매식한 경우 골의 증대를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 보고한 이래 다양한 즉시형 임플란트 술식에 관한 증례 보고와 임상 결과가 보고되었다.

즉시형 임플란트의 장점으로는 발치와의 치유능력을 이용할 수 있고, 긴 임플란트를 자연치의 위치에 식립할 수 있으며, 심미적인 보철 가능, 골흡수 방지, 치료기간의 단축 등을 들 수 있다.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증례선택과 정확한 진단, 치료계획이 이루어져야만 높은 성공률을 갖을 수 있다.

이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임플란트 환자 중 즉시형 임플란트를 시행한 증례에서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

Case 1

상기 환자는 29세의 남자 환자로 #47 치아의 심한 이차우식으로 인하여 보철과에서 즉시형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본과로 의뢰되었다. #46 부위는 one-stage ITI 임플란트를 시행하였으며, #47 부위는 발치 즉시 two-stage ITI 임플란트를 시행하면서 자가골 이식을 시행하였다. 3.5개월 후 #47 임플란트의 이차 수술을 시행하였다. #47 즉시형 임플란트 부위는 방사선 검사, 연조직 상태, 임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.

Case 2

상기 환자는 45세의 남자 환자로 #24 치아의 깊은 치은연하 파절로 인해 보철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본과로 의뢰되었다. #24 치아의 발치 즉시 ITI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자가골 이식을 시행하였으며, 동시에 #23 치아의 협측에 결합조직 이식을 이용하여 치근피개술을 시행하였다. #24 임플란트 cover screw의 노출이 약간 있었으나 큰 합병증 없이 양호한 치유를 얻을 수 있었으며, 7개월 후 이차수술을 시행하였다. 방사선 검사, 연조직 상태, 임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.